

지역 매아리



고창군, 여름꽃 7만본 식재

고창군이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시가지... 여름꽃 7만본 식재

13일 군에 따르면 올해도 무더운 여름을 싱그럽게 맞이할 여름꽃 메리핀드, 꽃백일홍 7만본을 지역 내 주요 화단 7개소에 식재했다.

이번 여름꽃은 이미 설치된 단간 화분(웨이브 페츰니아)과 더불어 화려함이 배가 되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산림공원과 고운기 과장은 "식재된 여름꽃 관수와 잡초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식중독 예방 대책 회의

고창군이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상시적·전제적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2018년 식중독 예방 종합대응·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식중독 사고 발생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군 환경위생과가 주축이 되어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군부대, 음식점지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모여 상호 역할분담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회의를 통해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조치로 식중독환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의 홍보와 위생단체 등의 식중독 예방 지도·계몽 활동 등에 대한 협의와 협조를 공고히 했다.

환경위생과 방관종 과장은 "기후 온난화, 기상이변, 급식·외식 증가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계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식중독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북체전을 대비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단 한건의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예방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대 뛰어넘는 역사공감

호남의병 최초순국 일광 정시해 의사 일광기념관서 순국 112주기 추모제

"의향 고창을 있게 만든 분이 바로 일광 정시해 의사입니다. 국권을 침탈당하는 위기에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최초의 순국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국가보훈처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이렇게 추모사에서 호모의정을 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고창을 일광기념관에서 사단법인 일광정시해의사기념사업회(회장 오윤호) 주관으로 순국 제112주기 일광추모제가 열리고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 최인규 군의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내빈과 회원들이 모여 시대를 뛰어넘는 역사공감대를 가졌다.

일광 정시해 의사의 시를 소개하는 식순에서 구백백정기(구백백정기) 사립병원 유성엽 국회의원이 낭독한 일광(一狂) 자호기에는 나라를 빼앗기게 된 비통한 심정을 광인(狂人)에 비유하여 호를 지었다는 연유가 전달되었다.

순국선열유족회 김시명 회장이 낭독한 장의시에는 "별을 잃힌 자의 당연한 도로로 이승인 면암 최익현 선생과 의병을 일으키는 결의가 소개되었다.

이강안 광복회전북지부장이 낭독한 만시(輓詩)는 구한말 애국지사



지난 11일 오후 5시, 고창을 일광기념관에서 순국 제112주기 일광추모제가 열리고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 최인규 군의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내빈과 회원들이 모여 시대를 뛰어넘는 역사공감대를 가졌다.

매천 황헌 선생이 일광 의사의 순국을 애도하며 지은 조문으로 유명한 글이다.

정시해(鄭時海) 의사는 양친 상에 6년을 시묘한 효자선비로 이승인 면암 최익현 의병진의 중군장을 맡아 일본군과 싸우던 중 1906년 6월 11일 순창전투에서 33세에 순국했다.

이에 유림들은 순국 6년 후인 1912년에 추모사업을 시작했다. 일본에 병탄된 뒤 서술이 파란 식민지에서 순국의병 추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투옥을 각오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통문(通文)을 낸 귀중한

자료를 발굴한 학자들은 이 문서가 한국 독립투쟁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해방 이후부터는 '충효양전(忠孝兩全)의 사표라고 규정하고 고창 삼태마을에 충효비를 세우고 추모제를 지내왔다.

1994년 설립된 일광기념관(관장 정만기)은 '일광 아카데미', '일광 답사단', '고창어울미당', '항일역사교실', '취업취업 길기', '길동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유리역사 바로 일기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장산 문화광장~위터파크사이 차량통행 금지

18일부터 시행... 내장삼거리 도로 구조개선도 추진

정읍시가 오는 18일부터 내장산 문화광장(이하 문화광장)과 내장산 위터파크(이하 위터파크) 사이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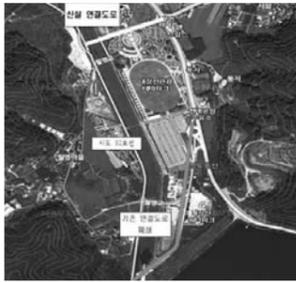
이 도로는 내장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내장산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국지도 49호선과 시도 32호선의 연결도로다. 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문화광장과 위터파크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통행 차량들로 인해 문화광장과 테마파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클데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12일부터 내장산 진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설 연결도로, 정읍시립박물관과 월령마을을 연결하는 월령

교와 시도 32호선 확장공사가 본격 개통돼 내장산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내장산 진입 도로로서의 기능을 했던 이 도로를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내장삼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호수공원쪽 방향 도로(국지도 49호선)는 기존대로 운영된다"며 "이번 도로 통행제한과 금지로 회전 교차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만큼 구조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여가캠핑장 주차장 입구 평면 교차로 설치를 포함하는 구조개선사업을 8월 말까지 완료해 회전 교차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월령교 개통과 위터파크와 문화광장 사이 도로의 폐쇄, 내장삼거리 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으로 문화광장 일대를 찾는 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16일은 고창 복분자 Day'

고창 복분자 6차산업화 사업단 이사회사 선포식

고창군이 11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이길수 부군수(군수 권한대행)를 사업단장으로 하는 '고창 복분자 6차산업화 사업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은·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선정된 '고창 복분자 Day'를 매년 6월 20일로 확정하고 오는 16일에 '고창 복분자 Day 선포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창 복분자 Day로 지정된 6월 20일은 6020으로 명명하며 '복분자 재철 시기인 6월에 60대가 복분자를 먹고 20대 기운으로 회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오는 16일 오후 7시부터는 2시간여 동안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복분자 Day 선포식과 음악여행'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복분자 Day 선포식과 음악여행'은 가수 가미와 그룹 부활의 보컬 정단의 '로맨틱 콘서트'와 6월 20일로 선정된 고창 복분자 Day 선포, 고창 복분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을 나누기 위한 고창 복분자 효능 수기 시상, 커플들을 위한 프로포즈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창 복분자의 우수성과 복분자클러스터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복분자의 관료화대와 복분자클러스터지구가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강보건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부안군 보건소

부안군 보건소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매년 6월 9일)을 맞아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구강보건주간으로 정하고 구강건강교육 및 홍보 등 예방진료를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구 보건소는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예방진료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요양보호시설, 유치원 등 치과를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출강

방문으로 맞춤형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 에다 치과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구강검진 및 상담, 치면세미(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구강위생용품 무료 제공,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군민의 사전 예방의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행사가 됐다.

또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할 만큼 치아건강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대 1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이오넬라균 검사

정읍시보건소가 오는 18일부터 내달 말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이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레이오넬라균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소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대형목욕탕,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레이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군 검출 결과에 따라 청소나 소독, 재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레이오넬라균은 대형 목욕탕 목조수나 대형건물 냉각탑수, 급수시설, 장식분수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

가 감염되는 질환이다.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지만, 특히 당뇨와 암, 만성폐질환, 자면역질환 등 만성질환자에서 주로 발생한다. 증상은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오한, 전신 피로감, 호흡곤란 등이다. 때로 마른기침과 복통, 설사도 동반된다.

치료를 발생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목욕탕이나 온천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featuring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